충전소 미비한데… 현대·기아·르노, LPG車 경쟁 예고

현대, 신형 쏘나타 LPG모델 준비
기아, 완전변경 K5에 라인업 추가
르노삼성, 국내 첫 LPG SUV QM6

정부 규제완화에 LPG 라인업 강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증가 우려도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LPG 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LPG차량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일반인도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업계는 LPG차량의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충전소 부족과 LPG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완성차 업계 라인업 강화…소비자 선택 폭 넓혀

현대차는 상반기 중 신형 쏘나타의 일반인용 LPG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 르노삼성은 국내 첫 5인승 LPG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QM6를 상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하반기 완전변경(풀 체인지)이 예정된 K5를 출시 초기부터 일반인용 LPG 모델도 라인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 등 3개사는 각사의 주요 '볼륨 차종'(많이 팔리는 차종)에 일반인용 LPG 모델을 추가함에 따라 '모델 노후화'로 감소세를 보이는 국내 LPG차 시장에 활기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특히 현대차는 '쏘나타=택시'라는 인식을 깨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신형 쏘나타의 LPG 모델을 택시용으로 판매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반인의 선택이 늘어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부터 LPG 용기를 실린더형이 아닌 '도넛형'으로 채택해 트렁크 공간을 대폭 늘렸다. '도넛형'은 르노삼성이 2014년 대한LPG협회와 함께 국내 최초로 개발했으며 트렁크 아래 비상용 타이어 공간에 장착함에 따라 실린더형보다 트렁크 공간을 40% 정도 늘릴 수 있고 차체 무게 중심을 낮춰 승차감도 높여준다.

르노삼성은 승용 LPe 모델 모두 '도넛 탱크'를 탑재해 큰 여행용 가방도 무리 없이 실을 수 있어 택시와 렌터카로 인기를 끌었다.

르노삼성은 앞서 2017년 10월 규제완화 때 일반인도 LPG SUV를 살 수 있게 된 이후 QM6 LPG 모델 개발을 시작했으며 상반기에 출시하기로 했다. QM6는 국내 판매 중인 SUV 가운데 유일한 LPG 모델이 된다.

여기에 일반인이 LPG 차량을 구매할 경우 유류비 절감은 기대 이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형 쏘나타를 기준으로 LPG 모델의 공인연비는 10.3㎞/L로 휘발유 모델(13.3㎞/L)보다 낮지만 가격은 L당 797.8원(오피넷 3월 2주차 전국 평균가 기준)으로 휘발유(1359.3원)보다 낮다. 이에 따라 연간 1만5000㎞를 운행하는 조건에서 쏘나타 LPG 모델의 연간 유류비는 116만1859원으로 휘발유 모델(153만3067원)보다 25% 적게 든다.

◆'보여주기식 행정' 논란

일반인들이 LPG 차량을 규제없이 구매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LPG 충전소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경우 충전소와 생산·저장 설비 등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많다. LPG 충전소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달 기준 서울 전역에 LPG 충전소는 77곳이며 전국으로 확대해도 1948곳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 501곳, 전국 1만 1540곳에 달하는 주유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LPG 충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LPG충전소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리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충전소 건설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LPG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줄일 수 있는 반면 이산화탄소는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르노삼성의 SM6의 경우 디젤은 CO2 배출량이 109g/㎞인 반면 LPG차량은 141g/㎞으로 높다. K5도 디젤 116g/㎞, LPG 138g/㎞로 차이가 난다. 결국 이산화탄소 증가로 미세먼지 만큼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로 온실가스배출량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반갑지만 아쉬움도 있다"며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문제도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T, 5G기반 UHD 생방송 최초 공개

오늘 SBS 모닝와이드 3부 중계

KT는 5세대(5G)이동통신 네트워크기반의 초고화질(UHD) 생방송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KT는 오는 19일 SBS 생방송 모닝와이드 3부를 통해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UHD 생방송을 최초로 공개한다. 5G 네트워크 기반의 UHD 생중계는 KT의 '기업전용5G' 서비스와 '5G MNG' 장비를 활용한다. MNG는 방송용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무선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방식을 뜻한다.

현재 방송사들은 중계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평균 5개에서 11개의 유심이 장착된 롱텀에볼루션(LTE) MNG 장비를 사용해 중계방송을 진행한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은 여러 통신사의 유심이 장착된 LTE MNG 장비를 통해 방송국으로 전송되고, 네트워크가 원활한 통신사의 망을 통해 영상 데이터를 분할 전송한다. 이 같은 LTE MNG 장비로 방송 중계를 할 경우 LTE 네트워크에서는 영상전송 및 서버에서의 영상처리 시간 등의 요인으로 속도 지연은 물론 화면품질 저하 등의 기술적 한계가 발생했다.

KT의 기업전용5G 서비스가 적용된 5G MNG는 5G 유심 한 개만으로 초고화질 영상 전송이 가능하다. 일반망과 분리된 방송사 전용 5G 네트워크를 통해 UHD 영상 지연을 최소화해 전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삼성 '상업용 디스플레이' 10년 연속 1위

작년 판매량 기준 25.8% 시장 점유

삼성전자가 10년 연속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지켜냈다.

18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8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25.8%를 기록했다.

10년 연속 1위다. 2009년 처음 1위를 기록한 후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가게 됐다.

삼성전자는 시장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는 가운데, 회의 솔루션 '삼성 플립'와 양면형 '세미아웃도어 사이니지', 퀀텀 프로세서 8K를 이용한 QLED 8K 사이니지 등 제품을 출시하며 혁신을 주도해왔다.

미국 NBA 경기장에 설치된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특히 최근에는 마이크로 LED 제품인 '더 월'과 시네마 LED '오닉스' 등을 출시하며 차세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주도권도 예약해놓은 상태다.

/김재웅 기자 juk@

SK브로드밴드, NCSI 9년 연속 1위

초고속인터넷·인터넷TV 부문
차별화된 경험 등 고객가치 혁신

SK브로드밴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19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NCSI)에서 9년 연속 초고속인터넷 부문과 인터넷TV(IPTV)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NCSI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수준, 인지품질, 고객충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량화한 지표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본원적 품질을 높이는 노력 외에 고객에게 기대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등 고객가치를 적극적으로 혁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B tv를 통해 '살아있는 동화', '플레이송스 홈' 등 키즈 대상 서비스와 국내 최초 시니어 전용관 'VIVA 시니어' 메뉴를 개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1인 콘텐츠 제작 시대에 발맞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팟캐스트를 B tv에서 영상으로 제공하는 '보이는 팟캐스트' 서비스를 통해 미디어 콘텐츠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2.5기가 인터넷 상용화 이후 5기가, 10기가 인터넷 또한 국내 최초로 출시한 바 있다.

/김나인 기자

정유업계, 배터리·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강화

국내 정유사들이 신규 사업 투자를 꾸준하게 늘리고 있다. 유가에 울고 웃는 기존 정유 사업 외에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신사업을 각양각색으로 구축하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전사 역량을 모아 배터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다.

우선 최근 SK㈜는 지난해 말 미국 배터리 개발 업체 '솔리드에너지시스템'에 287억원을 투자해 지분 13.1%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솔리드에너지시스템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성능이 두 배가량 높은 리튬금속배터리 관련 기술 등의 생산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현재 우주항공 제품에 쓰이는 초경량 배터리를 개발, 내년에는 기존 배터리 셀 대비 용량은 두배 늘리고 크기는 반으로 줄인 배터리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SK그룹이 전사적으로 배터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그룹에서 배터리 사업을 맡은 SK이노베이션도 해외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지를 늘려나가고 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한국 서산공장을 포함해 유럽, 중국, 미국에서 각각 공장을 배터리 운영 중이다. 여기에 최근 유럽에 제2 전기차 배터리 공장 신설을 결정하며 9452억원의 투자를 결의했다.

GS칼텍스는 주유소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최근 GS칼텍스는 LG전자와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기차 충전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새로운 사업을 탐색하기 위해서다. GS칼텍스는 기존에 제공했던 주유·정비·세차 서비스 이외에 전기차 충전, 전기차 셰어링, 전기차 경정비 등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차세대 친환경 모빌리티와 셰어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융합해 모빌리티 인프라 서비스 공급자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유소 택배 '홈픽'도 GS칼텍스가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홈픽은 SK에너지와 GS칼텍스가 주유소 공유 인프라를 활용해 선보이는 택배서비스다. '언제 어디서든 1시간 이내 방문 픽업'이라는 특장점을 내세운다.

GS그룹의 또 다른 주력 계열사인 GS에너지도 정유·화학, 전력·집단에너지, 천연가스 공급 외 자원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에너지 신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